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경축</b> <b>재외동포청 개청</b>
	배포일자	2023년 6월 25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수산자원연구소	담당자	• 자원연구팀장 • 담당자	구자근 ☎440-6420 김아름 ☎440-6421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수산자원 회복 위해 어린 주꾸미 45만 마리 방류**  
**- 23일, 영흥도 해역 시작으로 4회 걸쳐 건강한 어린 주꾸미 방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어린 주꾸미 45만 마리를 6월 23일(금) 옹진군 영흥도 해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강화군 주문도해역, 중구 영종도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인천 기준 어업생산량이 2020년 2만 6천 톤에서 2022년 1만여 톤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자원 회복종이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는 지난 5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난을 부착시켜 약 60일간 실내에서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0.5cm 이상 크기의 우량한 주꾸미다.

시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환경오염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류한 어린 주꾸미가 1년 후 약 80g 이상으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도 꽃게, 참조기, 주꾸미, 갑오징어, 바지락, 참담치 등을 방류해 인천 앞바다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며, 새로운 신품종 및 양식 기술을 개발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4월 강화군 황산도 해역에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붙임> 주꾸미 방류 사진

